

국민학교에서의 우유급식을 지켜 본 나의 소견

김 창 중

(서울 창동국민학교 주임교사)

1950년대에 교단에 처음 발을 디디고 어린이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에 학교에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아닌 우유와 옥분(옥수수 가루)을 섞어서 끓인 우유죽을 급식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 후 1965년까지도 계속 되더니, 근래에는 벽지교에 영양급식과 도시교에 자담 영양급식이 실시되어 발전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국비부담으로 저렴한 가격의 우유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은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50년대에 외국의 원조(세계아동 구호연맹?)로 실시되었던 우유죽 급식의 비위생적인처리와 연료 부족으로 그것마저도 제대로 급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급식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학교 책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웃지 못할 사례들이 교권을 흔들리게 까지한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시대적 고뇌를 맛보게 하였다. 이 때는 우유죽 급식을

실시하였나 하는 사실들을 외국기관에서 감시까지 하였으니 말이다.

지금도, 어린이들 앞에다 우유를 놓고 마시게 하는 시간이면 필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유급식의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발전된 조국의 강토에서 살찌고 싱싱한 젖소의 젖에서 완전 영양식사의 제일인 우유를 생산, 어린 싹들에게까지 먹이게 되었으니 가슴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다. 금상첨화격으로 멋진 포장에다, 맛스럽게 먹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필자는 감격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우유급식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로 제안 이유의 몇 가지를 더하여 보고자 한다.

1. 매식우유와 가정우유급식과 학교 우유급식과의 심리적 습관의 차이점과 장점.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는 시간이면 그 밝고 즐거운 모습을 함께 보게 된다.

부모들의 우유급식 이유를 들어보면 다양하다.

첫째 : 일정한 시간에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인다.

둘째 : 남들과 함께 먹일 수 있어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 가미우유(예 : 딸기우유등 순백 우유가 아닌우유)가 아닌 순수우유를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넷째 : 우유를 먹지 않던 아이인데 먹게 되었다. (동급생의 동일시간 우유급식 으로 소속감과 동일동행의식으로)

다섯째 : 위생관리와, 시간이 일정하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급식 시킨다.

여섯째 : 남들이 먹이니까 먹인다.

일곱째 : 값이 싸기 때문에 먹인다.

등…… 교사들이 우유의 영양가를 설명하고 또, 낙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걸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외국의 우유급식과 낙농업을 익히 배워 온 국민학교 고학년의 경우부터는 성인의 상식과 비슷한 이유에서 우유를 급식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동무들의 웃는 얼굴을 서로 쳐다 보며 우유를 먹는 순간이 즐거워서 먹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이 말하는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딸기맛, 바나나맛 등 과일맛을 낸다던가, 가미우유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담백한 순우유를 먹는 습관을 위해서도 학교우유급식은 타당하다고 본다.

병장처리나 위생처리가 소홀하기 쉬운 구멍가게 가관 우유가 늘 염려되던 터인데 양효교사나 영양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시되는 우

유급식의 장점으로 위생관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순간적인 비위생처리가 수 천 명의 어린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관 우유급식의 매식 행위는 비위생적 관리의 우려도 있고, 보관상의 문제등과 단순한 색채로 인한 호기심등도 작용하였다는 점, 가미우유의 맛에 끌렸다는 점 등에 미루어 학교 집단 급식은 순백우유를 위생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으로 인정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구멍가게에서 매식우유고객들에게 병장고가 아닌 노상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시간 진열행위등은 크게 염려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2. 교사들은 영양사이자 판매상이어도 즐겁지 않은가?

아마도 길가에서 우유를 팔고 있으라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의 어린 것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먹이는 시간이면 즐거운 생각이 앞서는 것은 비단 나쁜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난 봄, 처음 1학년 어린이들에게 우유급식을 시작할 무렵 우유대금 징수기간이 짧아서 마감시간이 지나자 늦게 돈을 갖고 온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항의로 다음 달부터 징수기간을 더 늘여서 희망하는 우유급식 아동들에게 전원 급식토록 한 일등은 1, 항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교사들이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우유급식의 이점을 강조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 삼사조(一石三四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본다. 크게 대별하여서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강조해 본다면,

첫째로 : 우유의 영양가를 바르게 학습토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어릴 때에 교사들의 강의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태어 여기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우유가 생산과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를 강조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시 망데스 프랑스수상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우유를 즐겨 먹는 자기의 모습을 방영하면서,

‘모든 국민은 식탁에 우유 한잔을’ 강조하여 소비 촉진의 효과거양에 힘썼던 사실이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학교에서부터 우유급식의 효과를 강조하는 학습을 시킨다면, 그보다 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둘째로 : ‘한국의 낙농업 발전은 우리민족의 건강과 농촌의 낙후성을 탈피시키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자.

고학년에서 학습하는 어린이들에게 사회과 시간에 강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농업 발달을 위한 교과과정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교육과정에서의 관련단원을 발췌하여서 낙농업 발달에 필요한 점을 강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별활동을 통하여 낙농업을 위한 시청각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현장 견학을 통하여서 젖소목장을 견학시키는 방법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학습의 효과는 낙농업인구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인구들인 도시어린이들은 우유급식이 바로 낙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작은 기반임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 실과 학습을 통한 우유식품개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실과시간 중에도 가사실습시간을 좋아한다. 이러한 즐거운 실과실습을 통하여 우유급식과 우유식품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어린이들이 즐거워 하겠는가?

또한 이러한 우유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하여 월등한 영양가를 지닌 값싼 식품이라는 점이 가미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이러한 실과실습에서 만들어진 식품의 시식 품평회가 이루어지고 다시 각 가정의 식탁에 올려지는 파급적 효과를 몰고 온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많은는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국민학교에서는 연 1~2회는 6학년과 5학년에서 실습을 하되 너무나, 상식적인 소재의 교재를 실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쳐 볼 때, 개선점의 일환으로도 강조해 두고 싶다.

3.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어머니 교실을 통한 강좌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어머니 교실을 통한 강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명예 의하여 새마을 주임교사가 된 뒤에 자연보호, 소비절약, 보리훈식, 어머니교실, 무궁화(나라꽃)교육, 정신교실, 질서생활 교육을 강조하여, 도시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우유소비의 여러가지 효과를 소홀히 생각했던 점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금년에 국내의 관심을 모으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유소비가 강조되고 또, 효과적인 식량 절약의 일환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게 되고 영양급식의 일환으로 우유급식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교실강좌를 통해서까지 우유 소비촉진과 국민영양을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년부터는 어머니교실 강좌에서 교육내용을 우유식품소비에까지 관심을 갖고 취택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여 본다.

권위있는 강사진을 초빙하여 우유식품의 영양강좌를 시킨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되나,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보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요리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어머니들은 즐거워 할 것이다.

여기에 곁하여서 한국낙농업발전과 풍요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식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가정식단 이야기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가정에만 갇혀있는 주부들에게 보여주는 어머니교실의 강좌는 분명히 흥미를 모으고 파급적 효과를 거두기에 족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관계 당국자나, 학교경영자 들의 관심도 기울여져야 할 것임은 한국의 교육 풍토로 보아 강조해두는 바이다.

4. 교사들의 우유급식의 관심도가 상승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언들이 아무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타당성있는 논리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단에서 교실경영을 하는 주체는 교사이기때문에 교사들의 사명감이 없이는 모든 것이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교사들 자신이 우유급식의 필요성과 노력을 위한 사명감이 고조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당국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장래를 위한 교사들과 우유관계자들의 노력의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소견의 일단을 마친다. (끝)

.....<우유를 마시자>.....

소화를 98%의 완전 자연식품

- 우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가장 완전한 자연식품입니다.
- 어려서부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국민은 몸도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 우유를 매일 마시는 습관을 길러 체력과 국력을 기릅니다.